

“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

■ 이종윤 원로목사

마태복음11:29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되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야’ 교회가 하나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빌2:5) 그 겸손은 세상의 어떤 겸손과 달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이요, 그가 보여 주셨고 실천해 주셨던 겸손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모방하려는 제자들만이 이 겸손을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함이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이 베드로 사도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성도의 발을 닦아주어야 할 자리에 앉아 오만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명령과 대접이나 받고 있다면 그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다.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동일하신 존재라는 뜻이다. 제2위 신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다. ‘본체시나’ 는 영어로 과거 시상으로 번역되었으나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분사형 즉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는 성육신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소위 사신(死神)신학이 나와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신은 죽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것이 신화라면서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버렸노라’ 하실 때 그 목숨은 헬라어로 ‘조에’ (생명)가 아닌 ‘프쉬케’ (자아)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6)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주권이 그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애를 써서 취하려고 할 만큼 소중한 것을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 (7)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심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을 쏟아버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 계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겸손의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경우 삼위일체 교리에 위배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색적이고 철학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의 겸손을 흠모하고 찬양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면서 종된 사람의 형체를 덧입고 계신 것이다. 神·人 양성의 기록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다. 케노시스(비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는 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케 된다. 도케티시즘(가현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고 영적으로 오셨다는 가현설은 기독교 이단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함, 영광, 존귀함, 권능을 다 보여 주셨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권능을 감추시고 자기 능력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 ‘자기를 비어’ 라는 겸손의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다. 종의 형체(헬. 폴레) 즉 그리스도의 지상 존재 형태가 복종과 천대와 멀리로 특징 되어진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고 구원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 우리 사랑과 겸손의 절대 모델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 지혜와 상상력을 초월한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과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모양은 본체와 형체와는 달리 다소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본래적이 아닌 형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랑이었고 그 자체가 겸손의 표상이 되신 것이다. 겸손과 복종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인간의 모든 겸손은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교만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복종은 십자가의 복종에 비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복종과 겸손의 극치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모시지 못함으로, 교회 연합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다.

-한국장로신문 [1486호] 2015년 12월 19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세 번째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Youtube 서울교회 계정을 통해 드리게 됩니다

주일예배 1부-9시, 2부-11시20분, 3부-오후2시에, 찬양예배-오후 5시에 예배 영상이 Youtube를 통해 송출됩니다

실시간 예배는 30분 전부터 송출하오니 미리 들어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117_sermon.jpg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다음 주일(24일)부터는 주일 1,2,3부 예배와 오후 찬양예배에 한해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가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예·결산 제직회, 은퇴식, 시상식 등 연기되었던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각 부서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서울교회의 완전한 회복과 재창립의 역사를 위하여 더욱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교육전도사 김은숙 양하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포,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성, 윤영모, 이금순, 김영렬(군선교) / 정성진·홍성임(말라위), 이재욱·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성도의 품격을 지키라 ”

■ 고전 6:1-8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에 빠집니다.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입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전혀 반성도 사모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마귀 자식들로 규정합니다. 사도는 이런 자들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용납하지 말고 성도의 품격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 복음이 경멸되고 조롱받게 하는 일을 피하라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도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신앙인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진리와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냥 지내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진리에 부합한 길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 3:8)고 가르치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빌 2:27)고 촉구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목사들이 욕을 먹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요 목사는 신분에 걸맞는 의식과 행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난은 정체성을 상실한 모든 단체나 개개인에게 다 적용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성도들끼리 일어난 송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끌고 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성도의 권세 혹은 특권을 살려주며 천사까지도 판단한다고 하면서 허물어 세상일 이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3절) 이것은 성도들은 무슨 일을 겪든지 사회법에 호소하여 문제 해결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정당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교회를 세상에 존속되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경멸되고 조롱받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2. 인내심을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라

사도 바울은 논쟁이 붙고 다툼이 발생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세상 법정에 소송을 가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회에서 형제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은 말씀의 재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을 우선한다면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너 화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7-8절). 사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와 같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의 완강한 태도와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하는 것은 형제를 얻기 위함이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하면 인간의 마음을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적당한 때에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심판자로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주의 법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개교천년해서 돌아오기를 학습교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도 형제의 회개와 돌아움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도들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형제들과 화평한 것이 디모테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맺는 말

형제와는 원수 맺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피가 선행하게 묻어 있는 복음이 무시되고 조롱당하게 하는 일들을 밟아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손해 보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심이 곧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해에는 실추된 교회의 영광 훼손된 복음의 능력을 도둑이서 성도 개개인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 교회의 위상도 세상이 무릎을 꿇는 위엄이 부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인터넷 영상	
III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대상 16:28-2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2(시 71) ...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15(55) ...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6:9-11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서원형 목사
* 찬 송 Hymn	421(210) ...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나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 하는 자난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 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고전 6:10)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1-2 ... 인 도 자
찬 송	22(26) ... 다 함 께
기 도	백승갑 집사
성 경	창 19:12-29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	설 교 자
* 찬 송	304(404) ...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인터넷 영상)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I 부 ... 함정희 권사
성 경	시 30:10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 2

설 교 ... 전재홍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7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 회 소 식

모임

1. 특별제직회(예-결산)

다음 주일(1월24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알림

1. 1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 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20분

6.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 40분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7. 609호 부서 모임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30분

8. 7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9.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10.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 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526명	374명	1,900명	475명	1,897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30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

사랑 받을 수가 없는 이가 사랑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이가 사랑을 받는 것을 공홀이라고 한다. 고로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공홀은 비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겠지만 공홀 없이는 생존할 수도 없음을 인식하자. 특히 하나님의 공홀을 입고 사는 사람마다 타인에게 이 공홀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공홀을 베푸는 자의 모델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베푸신 공홀은 희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공홀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홀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고 있다. 공홀은 용서로부터 출발되며 이해와 사랑이 동반된다. 공홀은 공로가 아니고 은혜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의 열매다.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